일본어 수동표현의 한국어 번역 양상과 그 특징

- 1900년～1920년대의 자료를 중심으로 -

유 민 아*

차 례

1. 들어가며
2. 연구 방법 및 자료
3. 일본어 수동표현의 한국어 수동표현으로의 번역 양상과 특징
4. 마치며

요 지

本稿では、1900年代から1920年代まで出版された日本語の文献とそれの韓国語の対訳本(直訳本)を対象とし、日本語の受動表現が韓国語で翻訳される際、その翻訳の様子そしてそこで表れる韓国語の受動表現の特徴について考察する。本稿で用いられる日本語と韓国語の受動表現の範囲について、日本語では統語的、意味的、形態的特徴を具える場合、韓国語では「이/히/리/기」の被動接尾辞、「되다」の助動詞、「받다,당하다」などの被動の意味を含む個別動詞、「-지다」の補助動詞を具える場合を受動表現として認めることにする。

本稿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点は、次のようである。

まず、動作主体を表す助詞として、「に」、「によって」、「から」がみられる。「によって」の場合、「によりて」「によって」「に依って」などの異表記がみられ、各々の使い方は動作主体の特徴によって違ってくる。「に」の場合、無情物と組み合わす際翻訳上「으로」がみられるが、これは自然現象の「で」と関わりがある。

次は、受動詞に対応する韓国語の受動詞の特徴についてである。韓国語「되다」被動に対応する日本語は「漢字名詞＋される」ではなく和語動詞である。「당하다」「듣다」の場合は動作主体と被動作主体両方とも有情物である。また「받다」の場合、不自然な韓国語で翻訳される文があるが、これは日本語の無理な翻訳によるものである。最後、日本語の受動表現に対応する能動表現の韓国語があるが、これは視点の差であると思い、韓国語では動作主体の有情物を主役として表そうとする傾向があることがわかる。

키워드 : 수동표현, 수동표현의 범주, 동작주체의 성격, 시점의 차, 일본어식 표현법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들어가며

본고는 일본어 수동표현이 한국어로 번역 될 때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 본 것이다.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시대사를 구분 할 경우 이민족의 침입과 같은 극심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변혁에 의하여 원인이 제공되거나 그 변화가 확산되는 것이 지적된다[1]. 이 점을 감안 할 경우 현대 국어의 형성에 영향을 준 커다란 변환점으로는 일제 통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제 식민지 하의 국어가 일본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 된 바 있다[2]. 그리고 이러한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표현 중 대부분 언급되고 있는 것이 피동표현이다. 즉 현대 국어에서는 전 시대의 우리말과 달리 피동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문은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일본어의 수동표현에서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한국어 피동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항을 전후하여 1945년까지의 근대시대 문헌에 대한 자료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근대 문법의 범주가 현대 문법 범주의 초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시기의 변화가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의 수동표현[3]연구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근세와 현대의 수동 범주를 바탕으로 근대 수동 범주의 변화 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근대의 피동 범주의 정립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세에서 현대로 이르는 통시적 수동 연구의 흐름을 이어줄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수동 연구는 현대의 수동에 가리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광(1995)은 한국어 피동형 표현의 문장이 일본어 자동사의 수동표현에서 영향을 받아 현대 국어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관형적 표현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증적 검증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윤호숙(1994,1998)은 근세, 근대 자료의 일본어와 한국어 수동표현의 사용빈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 한국어 수동표현과 무정물 주어의 사용 빈도의 증가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1) 정광(1992) 참조
2) 정광(1995), 송민(1979,1989), 이오덕(1992), 윤호숙(2002) 참조
3) 문의 주어 위치에 오는 인물 또는 사물이 보어 위치에 오는 인물이나 사물 또는 추상명사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법 범주의 명칭에 대하여, 일본어에서는 受動態, 한국어에서는 피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두 언어 사이의 이러한 문법 범주를 수동 표현이라 정의하였다.

있으나, 이는 양 언어 수동 표현을 각각 별개의 문헌에서 수집 분석한 계량적 비교・분석에 그치고 있다. 수동표현에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어떤 연유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들 조사는 대역자료 등의 번역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190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발간된 일본어 문헌과 그 한국어 대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 수동표현이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 나타나는 일본어와 한국어 수동표현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2.1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1900년부터 1920년대 말까지 간행된 일본어 문헌과 그 문헌의 한국어 대역본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대역본으로 원본의 完訳이 된 직역본만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抄訳이나 完訳의 의역본은 원문과 대역문 간에 잘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번역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작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문과 직역된 完訳의 대역본을 조사한 후, 그 중 현존하는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 후 입수된 자료에서 원문의 수동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대응 번역을 찾아 정리하였다. 이처럼 정리된 원본의 수동표현과 대역본의 번역문은 원문에서의 수동 종류에 따라 직접수동과 간접수동, 기저 동사의 성격(자・타동사), 주어와 보어의 성격,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의 성격 등으로 분석하여 보았으나, 그 중 수동표현을 나타내는 동사와 동작 주체를 나타내는 조사, 문의 주어・보어의 성격 등에 특징이 나타남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일본어와 한국어 수동표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일본어에서의 수동표현 소위 수동태는 보이스(voice)의 한 범주이며, 술어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둘러싸고 어떠한 동작 참가자를 주어와 보어로 선정하는가 라는 동작 참가자와, 문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에 따른 문법적 범주를 가리킨다. 즉 보이스는

통어론과 형태론에 걸친 범주이다. 이러한 보이스는 문법적 보이스와 어휘적 보이스로 나누어지는데, 문법적 보이스가 문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각각의 보이스 동사를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어휘적 보이스는 문법적으로 만들어진 보이스의 동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동사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문법적 보이스와 어휘적 보이스의 구분은 한국어 피동 표현에도 존재한다.

한국어에서는 피동문을 「능동문에서의 주어와 목적어가 위치 변환을 이룸과 함께, 일부 구성 요소의 형태에 변동이 이루어진 문장이며, 의미적 관계에 있어서도 피동문은 주어 위치에 있는 명사구가 서술 동사구로 표시된 행동의 피동자임을 드러내는 문장」이라 정의하고 있다[4]. 그러나 한국어 피동은 피동의 범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5]. 주로 거론되는 피동의 범주에는 「이,리,히,기」의 피동접미사, 「되다」「-지다」의 조동사, 「받다, 당하다」 등의 피동의 의미를 함의하는 개별동사가 있다. 이 중 「「받다, 당하다」 등 피동의 의미를 함의하는 개별 동사」가 한국어의 어휘적 피동에 해당된다는 것에 별다른 異論은 없다고 보여진다.

이에 필자는 양 언어의 수동표현을 문법적 수동과 어휘적 수동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며, 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법적 수동: 문법적 변화에 의하여 수동의 의미적, 구문적, 형태적 특징을 갖춘 경우

어휘적 수동: 문법적 변화에 의하지 않은 단독의 두 동사가 의미적, 구문적으로 보이스의 대립을 이루는 경우

이러한 문법적 수동과 어휘적 수동의 하위 분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의 경우 문법적 수동으로 (1) 「이,히,리,기」의 피동접미사 (2) 「되다」의 조동사 (3) 「지다」의 보조 동사를 두었으며, 어휘적 수동으로 「받다, 당하다, 입다」 등의 피동의 의미를 함의하는 개별 동사를 두었다.

일본어의 경우 문법적 수동과 어휘적 수동의 구분은 위의 정의와 동일하며, 예로서 문법적 피동의 경우는 笑う-笑われる 등이, 어휘적 피동으로는 買う-売る,あずける-あずかる 등이 포함된다.

---

4) 우인혜(1994) 참조

5) 이상억(1970), 성광수(1976), 이기동(1978), 임홍빈(1982), 김석득(1984), 서정수(1990)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 중 이번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문법적 수동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수동범주로는 원문의 번역 상 문법적 수동과 어휘적 수동, 능동 표현 등이 나타남으로, 이 세 가지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다.

2.2 조사 자료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는 1900년대 초에서 1920년대까지 발간된 일본어 원본과 그 대역본(직역본)이며, 각각의 문헌은 다음과 같다.

<일본어 원본>

『リンコンの人物　および　其の事業』(1907),『爾の隣』(1907),『ヱヽベニスの商人』(1909),『ハムレット』(1909),『人形の家』(1913),『海の婦人』(1914),『死とその前後』(1917),『私の後悔』(1919),『春の波』(1921)

<한국어 대역본>

『린커언의 인물과 및 그 사업』(1910),『너의 이웃』(1910),『베니스의 상인』(1924),『하믈레트』(1923),『노라』(1922),『해부인』(1923),『죽음과 그 전후』(1964),『나의 후회』(1926),『봄물결』(1926)

1900년대 초기의 일본어 문헌과 이를 번역한 한국어 문헌을 살펴보면, 원본과 대역본 중 하나 만이 현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원본과 대역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외국어의 重訳이 많았고, 번역 형태는 完訳보다는 抄訳이 많았으며, 번역 방법에는 직역본과 의역본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6].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본고가 사용한 원본과 직역된 완역의 대역본은 현존하는 그 당시의 중요한 작품들 중의 하나로 사료되며, 그 사용 가치는 크다고 하겠다.

6) 김병철(1998)참조

3. 일본어 수동표현의 한국어 수동표현으로의 번역 양상과 특징

본고는 수동표현을 형태적, 의미적, 구문적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중 수동 동사의 성격,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 주어・보어의 성격 등에 특징이 나타남으로, 이 장에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와 수동 동사의 번역 형태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에 대하여

일본어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로「に」、「によって」、「から」、「で」등이 나타나며, 전체의 용례 327개 중「 に」가 77龕,「によって」가 22龕,「から」가 15 龕,「で」가 8龕로,「に」가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각각의 조사와 그와 함께 나타나는 주어와 보어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1 「に」

1) 而してまた他方では之と同じやうな敬意の関係が信者にも … そのほかの信徒にも見られる事実であって、(私の後悔)
그리하고 다른 方面으로 이와 갓흔 敵意의 관계가 旧信者, … 그밧게 다른 信徒에게도 発見되는 事実이며, (나의 후회)

2) 私は次第にこれ等の人々に引きつけられ出した。(私の後悔)
나는차차 이들 사람에 誘引을 밧앗다. (나의 후회)

3) そして 私ー 彼等の手につくられたものであり、 … (私の後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손으로 되며, … (나의 후회)

4) 私が 信仰に 惹き付けられて居たのは、… (私の後悔)
내가 信仰에 誘引된 것은 … (나의 후회)

5) 俺の髭はイパンの慰みに去（ぬ）かれるって、生したんぢやない（爾の隣）
내 수염은 이반이란 놈의 장난으로 뽑힐 소용으로 기른 것은 아닌걸.(너의 이웃)

6) エリーダ: 私の心が一度他のあるものに引きつけられてゐたといふ話ゐは、(海の婦人)
에리다: 나의 마음이 한번 다른 엇던곳으로 쓰을녓드란말슴은 (海婦人)

위 예문들은 동작주체로「に」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に」의 대응 한국어로는 예문(1)(2)와 같이 동작주체가 유정물일 경우「에게(내에게, 내게, 내의게), 에」가, 예문(3)-(6)과 같이 무정물일 경우「에, 으로」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의, 에 대해서」등이 나타난다. 또한 무정물과 함께 사용되는「に」는 주로 원인을 나타내는데, 예문(4)의 경우에도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가 동사「惹き付けられる」가 의미하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정물의 동작주체는 1920년대 들어와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예문(5)(6)은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로「으로」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으로」는 주로 추상 명사와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추상명사 + に」의 경우,「に」가「에」로 해석되어, 위와 같은「으로」로의 사용은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 당시 무정물의 동작주체를 해석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던「에」가 점점「으로」로 대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7) ビスケットや砂糖菓子の方にばかり気を取られてゐた。(春の波)
비스켓트하고 사탕과자에만 마음이 쏠니엿다. (봄물결)

위의 예문(7)은 수동 동사로「気をとられる」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로는「-에 마음이 쏠니다」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気をとられる」,「心を引き継がれる」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 동사라기보다 거의 감정을 나타내는 관형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도 관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다. 이를 통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양 언어의 관형구가「人・物に 수동 동사」「人・物에 수동 동사」와 같은 유사한 구문을 갖고 있으며,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와「에」도 원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3.1.2 「によって」

8) 且つ大思想家達によりて確かめられたものであるにも拘はらず (私の後悔)
또 大思想家達에게 긍정을 밧기는하엿으나, (나의 후회)

9) それはソクラテスやショウペンハウエルやソロモンや仏陀によって与へられたところの答である。(私の後悔)
그것은 소크라테쓰와 쏘펜하우에르와 솔노몬과 仏陀로 因하야 附与된 対答이다. (나의 후회)

10) 而してこれ等の力ある人々の言葉や、幾満幾億の人々の考え、且つ感じたところのものが、私によって考えられ、感じられたのである。(私の後悔)
그러고 이러한 能力이잇는 사람들의 말과, 幾満幾億의 생각, 또한 感覺된 것이, 나로하여금 생각되고, 感覺되게 한다.(나의 후회)

11) 何故なら、私の初期の生活は、その刺激によって導かれたからである。(私の後悔)
웨그러냐하면 나의 初期生活은 그 자극에 依하야 引導되었든 까닭이다. (나의 후회)

12) 神拝、後悔、祝福、私はこれ等の事をよく理解したし、それに依って人生の意義が自分に開かれたと云ふ喜ばしい信念をも与えられた。(私の後悔)
神拝、後悔、祝福、나는 이것들을 理解도 하며, 그것에 依하야 인생의 意義가 自己에게 開示되었다.(나의 후회)

위 예문들은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로「によって」가 사용된 경우이다.「によって」의 앞에 오는 동작 주체로는 예문(8)(9)(10)과 같은 유정물, 예문(11)(12)와 같은 무정물이 사용되며, 문의 주어로는 예문(9)-(12)와 같이 무정물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によって」가 주로 무정물 주어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によって」의 표기로「によって」,「によりて」,「に依って」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각각 의미를 분담하여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예문(8)과 같이 유정물을 나타내는 경우는「によりて」、예문(9)(10)(11)과 같이 유정물과 무정물에서 동시

에 사용되는 경우는「によって」, 예문(12)와 같이 무정물만 사용되는 경우는「に依って」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によって」의 의미 분담은 대응하는 한국어의 번역 형태에 의하여도 설명될 수 있다. 예문(8)과 같이 유정물과 결합하여「에게」로 번역되는「によりて」와는 달리, 유정물과 무정물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는「によって」는 예문(9)(11)과 같이 앞의 동작주체가 유・무정물에 관계없이 주로「로 因하야」「로 하여금」「에 依하야」로 번역되고 있으며, 이유・원인・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유정물과 더불어 사용되는「によって」는 일본어에서와 동일하게[7], 한국어에서도「によって」앞에 오는 명사를 유정물이라기 보다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무정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によって」는 보통 유정물과 더불어 사용되는 조사「에게」로 번역된 경우가 없이, 주로 원인을 나타내는「에 因하야」등으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정물을 나타내는「에게」로 해석된 동작주체조사는「によりて」의 해석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순수한 유정물로의「によって」는「によりて」가 담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유정물과 더불어 사용되는「によって」가 완전한 무정물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によって」가 유정물과 사용되는 경우 예문(10)과 같이「로 인하야」이외에도「로 하여금, 로 말미여」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무정물과 사용될 때의 해석상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によって」와 더불어 사용되는 동작주체의 유정물은 완전한 유정물이나, 완전한 무정물이 아닌 그 사이의 중간 단계 정도로 인식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한편 예문(12)의「に依って」는 위의「によりて」,「によって」와는 달리 무정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는「에 依하야」이며, 이 번역은 무정물과 결합되는「によって」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によって」의 유정성, 무정성에 대한 성격은 유정성이 강한「によりて」에서, 유・무정성의 중간 단계인「によって」를 거쳐, 무정성만을 나타내는「に依って」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

7)『日本語教育事典』(1982), 大修館에 의하면 によって는 (1)동사를 수동화 할 경우, 그 동사의 동작주체 (2)이유, 원인 (3)수단, 방법, 재로 (4)현상이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고 하였다. 이는 によって의 주 성격이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유정물과 더불어 사용된 동작주체가 단순한 동작주체라기 보다 이유, 원인의 근거를 나타낸다는 것은 유민아(2003)에서 언급한 바 있다.

3.1.3 「から」

13) 私はあなたのいかれるところへ行きます、そしてあなたから追ひ出されるまであなたのお傍におります (春の波)
나는 당신에 가는 곳에는 어대든지 따라가지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내여쫏길 때까지 당신의 엽헤 따라다니지요 (봄물결)

14) クログスタッド: 私がそうやって社会から投り出されたのもあなたと同じ事をしたからてすぜ。(人形の家)
끄록스타드: 내가 이전에 공민권을 빼앗기고 이가티 社会에서 쪼겨난것도 노인과 똑가튼 일을한 까닭이야요.(노라)

15) そしてエミイルから「口を利け」とか「嘘をしろ」とか命令されると、(春の波)
그리고 애밀로부터 「말들어」라든지 「경친다」라는 꾸중을 드를때에는, (봄물결)

16) 無論私母さんからひどく叱言を聞かされなくちやなりませんでした、(春の波)
물론 어머니한테는 눈이 빠지도록 꾸중을 드럿지만(봄물결)

위의 예문들은 「から」를 동작주체 조사로 사용한 경우이다. 이 「から」의 경우 더불어 사용되는 동작주체는 위 예문(13)-(16)과 같이 유정물과 무정물이 모두 보이며, 그 중 유정물은 예문 (13)과 같이 주로 한국어 「에게」로, 무정물은 예문 (14)와 같이 「에서」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발표 연대가 늦어지면서 유정물 해석에 예문 (15)(16)과 같은 「로부터」「한테는」 등이 나타나며, 무정물일 경우도 「에서」 이외에 「으로 말미암아」 등이 나타난다. 이는 그 당시의 어휘의 다양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의 용례 중 「から」는 1920년대 작품에서부터 등장한다.

이상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일본어 조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 조사와 더불어 사용되는 수동 동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2 일본어 수동 동사의 한국어 번역 형태에 대하여

일본어 수동 동사에 대응되는 한국어 수동 표현으로는「되다」수동, 접미사 수동,「받다」등의 수동의 의미를 함의하는 개별동사 등이 나타나며, 총 예문327㈜ 중「되다」수동(98㈜)과 접미사 수동(83㈜)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일본어 수동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수동표현에 대하여 본고가 정한 범주에 의하여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2.1 문법적 수동으로 번역된 경우

3.2.1.1 되다 수동

17) バンタレオーネもサアニンに紹介された。(春の波)
사-닝에게 소개되었다.(봄물결)

18) 私は進歩といふことがしば々不合理な方法で企てられた事を思ひ、(私の後悔)
進歩라는 것이 不合理한 方法으로 成立된것을 생각하고는,…(나의 후회)

19) 千万の人々によって与へられる意義は、ある軽悔された、不条理な知識の上に建てられているといふことである。(私の後悔)
千万의 사람들로 因하야 엇은 意義는 軽蔑을 밧은 不条理의 知識우에 立建되엿다.(나의 후회)

20) 一八四〇年にはまだ鉄道はあまり敷かれてゐなかつた。(春の波)
아즉 철도가 만히 부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봄물결)

이「되다」수동은 위의 예문들과 같이「한자명사+되다」의 형식으로 사용되며, 시대에 관계없이 꾸준히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사용되는 문의 주어와 보어는 예문(17)과 같이 유정물인 경우도 있지만, 예문(18)(19)(20)과 같이 무정물인 경우에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 당시 무정물 주어의 되다 수동이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되다」수동으로 해석되는 원문의 동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되다」 수동은 예문(18)-(20)과 같이 원문의 일본어 동사가 「한자명사 + られる」가 아닌 고유 일본어 동사가 많다. 일본어 원문의 「한자명사 + される」의 번역문이 「한자명사 + 되다」일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고유 일본어 동사가 한국어에서 「명사 + 되다」로 번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 당시 한국어의 「한자명사 + 하다」의 사용이 급증함[8]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수동표현인 「되다」도 급증한 것으로 생각된다[9].

물론 일본어 「한자명사 + される」가 「한자명사 + 되다」로 해석된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번역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예문(21)과 같이 일본어가 그대로 직역된 경우이고 둘째는 예문(22)와 같이 일본어에 대응하는 한자 명사 대신 다른 한자 명사를 사용한 경우이다.

21) 私は進めば進むほど、流れを下つて行く長い行列を見つめて、自分に指定された航路を流れる。(私の後悔)
나아가면 나아갈사록 홀름을 나러가는 긴 行列을 바라보며 자기의 指定된 航路를 낫게되였다. (나희 후회)

22) ポーシ: まして、わたくしの運命は籤で予定されてをりますから、(ヱニスの商人)
더구나 저의 운명은 세가지퀘에서 아라맛치기로미리 작정되엿삽기로 (베니스의 상인)

후자의 경우는 아마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설의 경우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며, 또한 아래의 예문(23)과 같이 이들 한자 명사 중 현대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그 당시 직역이 아닌 한

8) 우인혜(1993)에서는 개화기 국어에서 하다가 과도하리만큼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양상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로 한자어의 과다 사용을 들고 있다. 즉 大酔, 有助, 作罪등의 한자어에 하다를 사용하므로써 하다 구문으로 표현되고 있다.

9) 이러한 되다 피동의 급증에 대하여 이오덕(1992)은 이것이 일본의 영향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정택(1999에서는 되다 피동의 경우 옛말이 주로 타동사의 명사형 및 형식명사-바를 이용한 반면, 현대어에서는 주로 타동성을 띤 체언만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하여 명사 + 되다 피동의 급증을 설명하고 있다.

국어에 맞는 어휘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ハム: ああ、彼 (運命の) 神に弄ばれて、心にも無い音を出す笛のやうでは無く、(ハムレット)
아아 저 神에게 幻弄되어 마음에도 업는 소리를 내는 저 (笛)ㅅ 대갓지도 아니하고, (하믈레트)

또한「한자명사 + 되다」수동은 지금까지의 예문(18)-(21)과 같이 동작주체가 대부분 나타나 있지 않거나, 나타날 경우는 아래의 예문(24)와 같이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によって」와 더불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이는「によって」구문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정물 주어를 취하는 문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무정물 주어는 보편적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혹은 공식적은 문장에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설문이나 설명문은 그 당시 지식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었던「한자명사 + 하다」의 잦은 사용이, 이 형식의 피동인「한자명사 + 되다」의 사용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4) しかも何人も答へ得ないこの疑問を再び持ち出すことによって、忘られてしまふ。(私の後悔)
누구나 对答을 할수업는 이疑問을 再次 提出함에 인하야 忘却되고만다.(나의 후회)

3.2.1.2 이,히,리,기 등의 접미사 수동

25) ああ、責めさいなまれても嬉しい、責めるお役人がこういふ命の助かる返事を (ヱニスの商人)
졸니는것도 반가워-졸으는 심판관이 이러케 목숨구원엇을 대답을 (베니스의 상인)

26) 彼は魔法にでもかけられたやうに、(春の波)
무슨 마법에나 걸녀잇는듯이,(봄물결)

27) そしてその路筋にはずつと果樹が植えつけられてゐた。(春の波)
길가에는 과일나무가 쭉-심겨잇섯다.(봄물결)

28) 屍体は土中の穴に入れられるのだと知った。(私の後悔)
屍体는 土中에 파무치우는것이라고하엿다.(나의 후회)

29) あの蛇のやうに縮れた金髪も風に撓れて、みだりがはしう波を(ヱニスの商人)
곱을곱을한 금빗나는머리결로 바람에헛날니우는 물결처럼(베니스의 商人,85)

위의「이,히,리,기」접미사 수동은 예문(25)(27)(28)과 같이 동작주체를 갖지 못하는 문장이나, 예문(26)(29)와 같이 동작주체 조사로「に」를 가진 문장의 해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작주체의 특성을 지닌 접미사 수동은 근세 수동과 관계가 있다 하겠다. 근세 한국어 수동은 동작주체를 거의 갖지 않으며, 나타날 경우에도 유정물 동작주체가 많다고 한다. 이 특성은 근세 일본어와 동일하며, 그러므로 이러한 근세 일본어 성격을 지닌 근대 문장의 해석에 사용된 접미사 피동이 근세 한국어에서도 사용되었던 피동의 형식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 할 수 있다. 접미사 피동 중에는 예문(28)(29)과 같이 이중 피동「피동접미사+우」의 형태도 보이는데, 이는 일본어 원문의 직역을 위하여 새로이 나타난 동사의 형태라 생각된다.

3.2.2 어휘적 수동으로 해석된 경우

3.2.2.1 받다 수동

30) ハム: 我等の評判は、予 (わし) がゐたころに変らぬか？ 同じ様に持囃されてゐるか？(ハムレット)
그네들의 評判은 내가 서울잇슬때와가티 다름이 업는가. 한가지 歓迎을 만히받다.(하믈레트)

31) 彼女は自分の言葉に不意に打たれたかのやうに、 (春の波)
그는 자기 말에 대해서 뜻밧게 엇더한 찔임을 바든듯이, (봄물결)

32) 眼の前に明らかに打ち展かれて居る揺かな地平線に惑はされ、 (私の後悔)
眼前에 분명히 開展된 먼 地平線에 誘惑을 밧으며, (나의 후회)

위의 예문들은 받다 수동의 경우이다. 이 받다 수동은 예문(30)-(34)와 같이 문의 주어로 대부분 유정물이, 보어로 유정물과 무정물 모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조사로 예문(31)의「에 대해서」, 예문(32)의「에」, 이 이외에도「에게」,「에게서」,「의」 등 다양한 조사가 사용되고 있으며, 예문(30)과 같이 동작주체가 없는 구문도 보인다. 번역은 일본어 원문에 충실하나, 원문의 동사가 대부분 고유 일본어 동사인 반면 번역문인 한국어에서는「한자명사+받다」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래의 예문(33)(34)와 같이 현대어에서는 사용되는 않는 동사 구문도 보인다.

33) 私はそれまでに教へ込まれた凡ての信仰を (私の後悔)
나는 오래동안 배호앗든 모든 신앙을 (나의 후회)

34) ジャイ: ヂェシカや、わしは宴会に呼ばれて往く。(ゞニスの商人)
샤이록: 제시가야! 나는 연회에 청함을 밧아간다. (베니스의 상인)

이러한「배호앗다」,「청함을 밧다」,「대우를 받다」 등은 일본어 직역체에 따른 오용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오덕(1992)에서는 일본어 동사「呼ぶ」의 피동은 한국어에서는 없는 피동이며 그 번역은「불리다」로 되어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예문(34)와 같이「불리다」가 아닌「청함을 받고」라는 번역이 있어 주목된다.

3.2.2.2 얻다 수동

35) 科学によって与へられるこの問題の答は、…(私の後悔)
科学에서 엇은 이 問題의 対答은 …(나의 후회)

얻다 수동은 예문(35)와 같이 동사로는 주로「与えられる」라는 고유 일본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로는「주어지다」라는 직역의 동사도 가능하나,「얻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는 무정물인 수동문의 동작 주체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의인화가 가능한 무정물인 경우에는 주다 동사가 가능하나, 위의 예문과 같은 무정물은 의인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정물인 주어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엇다 동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동표현에 대응되는 일본어 표현은 위 예문과 같이 동작주체로서 「によって」구문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의 대응 한국어로는 「에서」「에 의해서」가 사용된다.

3.2.2.3 듣다 수동

36) ハム: 且つ王子ともあらうものが海綿(すぽんじ) に問はれて、どう返答が成らうぞ？(ハムレット)
하믈: 그런데 海綿들이 하는 말을 듯고 所謂 王子라고하는 者의対答이 어떠케 갈줄알고서. (하믈레트)

다음으로 듣다 수동의 경우이다. 위 예문(36)과 같이 이 듣다 수동의 경우 「말을 듯고」,「꾸중을 듣고」 등의 동사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듣다」가 청각을 사용한 감각 동사라는 어휘적 성격 때문에 결합되는 명사가 한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의 주어와 보어는 모두 유정물이다.

3.2.2.4 당하다 수동

37) 露西亜語は直き覚えられるかとか、士官から狙はれたとき彼がどういう気持がしたかとか(春の波)
로시아말을 곳 배워질 수 잇느냐는 둥 다른사람에게 그럭케 모욕을 당할 그때 기분이 엇더하엿느냐는 둥 (봄물결)

위 예문(37)은 당하다 수동의 경우로, 사용되는 일본어 수동동사로 「狙はれる」가, 대응되는 번역어로 「모욕을 당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하다 수동은 원문의 일본어 동사에는 고유 일본어 동사가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은 대부분 직역으로 되어 있으나 의역의 부분도 보인다. 더불어 사용되는 문의 주어와 보어는 모두 유정물이다.

3.2.3 능동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

번역된 한국어가 능동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 번역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2.3.1 일본어와 한국어의 시점의 차에 의한 경우

38) 全然あなた一人の手できめられる事です。(海の婦人)
전혀 당신 혼자 결정지을 일이지요.(海婦人)

위의 예문(38)을 살펴보자. 일본어 원문은 무정물 事를 주어로 내세워 「이 일은 당신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당신이 이 일을 결정짓는다」라는 동작주인 당신을 주어로 내세운 능동의 의미를 지닌 능동 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어 원문은 수동이나 대응 한국어가 능동으로 번역된 경우는, 주로 일본어 원문의 주어가 무정물, 보어가 유정물일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를 한국어에서는 유정물을 주어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다. 이는 한국어가 무정물 주어보다 유정물 주어를 더 선호한다는 시점의 차로 보여진다.

3.2.3.2 일본어 중간동사 번역의 경우

39) 私は人の物笑ひになつて、妻君政治で頭は上がらないと言はれるだろう。(人形の家)
나는 남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아서 內部 大臣 政治에 머리를 못든다 할터이지.(노라)

위의 예문(39)는 일본어 원문의 동사가 「いはれる」라는 수동 동사이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하다」라는 능동 동사로 해석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중간동사 「いはれる」, 「喝采される」 등은 「명명되다」 또는 「칭해지다」, 「불리워지다」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의 예문과 같이 능동으로 해석되거나 의역 또는 생략된 경우가 많다. 이 중간동사의 능동사로의 번역은 아래의 예문과 같이 동사가 중간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40) さうした答えが私の問題に対して与へられたことを非常に驚いた。(私の後悔)
그러한 対答이 내 問題에 생긴 것을 썩 異常스럽어하엿다.(나의 후회)

41) サラリ: はやてがやってきたらと思うと、わたしなら忽ち瘧（おこり）にとっつかれます。(ヱニスの商人)
사라리노: 만일 바다에 이런 사나운바람이불면 엇지할가 십허 나 갓흐면 생병이 날터야.(베니스의상인)

위 예문(40)의 경우 일본어 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에 「주어지다」라는 직역의 동사 대신에 「생기다」라는 자동사를 사용하고 하고 있다. 이 「생기다」라는 자동사는 받다, 당하다 등의 수동표현 구문과 같이 「피동작주 - 동작주 - 동사」의 구문을 이루고 있으며, 수동 동사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로 고려해 보아야 할 동사이다. 그러나 이 동사는 자발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동 구문과 더불어 사용되는 자동사로는 위 예문(41)과 같은 「나다」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의 수동과 자발의 관계가, 수동과 자발을 동일한 구문으로 사용하는 일본어와 유사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며, 더불어 일본어의 경우는 자발과 수동의 의미 영역이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수동과 자발의 의미 영역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3.2.3.3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

42) レヤ: 烈火と燃立つ言分はあっても、此鈍なものに消されてしまふわ。(ハムレット)
레에: 烈火로타오르는 文句는잇지마는 이 愚鈍한 物件에 사라지고 말겟지.(하믈레트)

위의 예문(42)는 일본어 수동 동사 「消される」의 대응어로 「사라지다」라는 자동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수동 동사에 자동사가 대응되는 경우, 이는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가 없어, 대신에 같은 뜻을 가진 자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로 보여진다. 이 경우 원문의 일본어 동사는 대응하는 자동사를 가지지 못하여 수동동사가 그 의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국어에는 자동사가 존재함으로 자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3.2.3.4 지다 수동의 생략에 의하여 능동사로 번역된 경우

43) 若し私が投げ出されたなら 一体だれが私を投げ出したのか。 (私の後悔)
만일 내가 내여바렷다하면 누가 나를 내여바렷을가.(나의 후회)

위의 예문은 수동의 의미를 지닌 「-지다」가 생략된 경우이다. 즉 예문(43)의 대응 수동 동사는 「내여바러졌다하면」이 정확하나, 지다의 생략으로 「내여바렷다하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20년대 들어 조금씩 증가한 「-지다」 피동이 아직 정립되기 이전의 양상의 하나로 생각된다.

4. 마치며

이상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까지 자료에 나타난 일본어 수동표현의 한국어 대응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어 수동표현 중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조사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に」가 무정물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중 「으로」와 대응되는 것이 있으며, 이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で의 해석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관형구는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동일한 수동 구문의 양상을 보였다.

「によって」의 경우는 「によって」, 「によりて」, 「に依って」와 같은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중 유정물의 동작주체는 「によりて」가, 무정물의 동작주체는 「に依って」가 사용되며, 유정물・무정물에 모두 사용되는 것은 「によって」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어에서는 유정성이 강한 것과 무정성이 강한 것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によって」와 더불어 사용된 유정물의 동작주체가 무정성이 나타내는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음을 한국어 번역 양상을 통하여 밝혀보았다.

다음으로 일본어 수동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양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되다」 수동의 경우 그 원문의 일본어 동사가 고유 일본어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명사+되다」 수동으로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한국어 내의 「하다」 사용의 급증과 그 영향으로 생각하였다.

「받다, 당하다, 듣다, 얻다」 등과 같이 피동의 의미를 함의하는 개별 동사의 경우 원문의 일본어 동사가 대부분 고유 일본어 동사이었으며, 특히 「당하다」와 「듣다」는 주어와 보어가 모두 유정물이었다. 또한 「받다」로 번역된 경우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이 보이며, 이는 당시 일본어의 무리한 직역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수동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능동표현으로 나타난 경우에 대하여 일본어와 한국어의 시점의 차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일본어의 중간동사 수동의 한국어 능동사화, 한국어 「-지다」 수동의 생략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상 일・한어 수동표현 범주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았으나 아직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 이들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동표현에 대응하는 일본어 번역문의 번역 양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 싶다.

참고문헌

김병철(1998),『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김석득(1979),「히-와 어지- 에 대하여」,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김정혜(2004),『일본어 수동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어와의 대조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성광수(1976),「간접 피동에 대하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송민(1979),「언어의 접촉과 간섭유형에 대하여-현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어문집 10, 성심여자대학교
____(1989),「한국어내의 일본적 외래어 연구」, 일본학보23, 한국일본학회
신석기(2004),『한국어와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관한 대조연구』, 단국대 대학원
안증환(1999),『한일 피동태 대조연구-피동문 변형능력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우인혜(1993),「되다 피동 표현의 통시적 고찰」, 한양어문연구, 한양대학교
유민아(2003),「능동문과 수동문에서의 조사의 연속성에 대하여」, 일본연구, 고대일본연구회
유장옥(1999),『한일 피동표현의 대조연구』, 한양대 대학원
윤호숙(1994),「近代の非情の受身について」, 国四国教育学会 教育学研究紀要40
_____(1998),「近代日韓両語における受身表現の対照研究」, 朝鮮学報, 朝鮮学会
_____(2002),「남북한 언어에 보이는 일본어식 표현법」, 일본연구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기동(1991),「동사 되다의 의미 분석」, 동방학지 71,72 합집, 연세대학교
이상억(1970),「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국어연구26, 국어연구회
이오덕(1992),『우리글 바로쓰기 1,2』, 민음사
임홍빈(1977),「피동성과 피동구문」, 논문집12, 국민대학교
정광(1992),「근대국어 연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 어문논집31,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____(1995),「일본어투 문장표현」, 새국어생활, 국립국어 연구원
高橋太郎(1996),『日本語の文法』
寺村秀夫(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１』, くろしお出版
仁田義雄(1991),『日本語のヴォイスと他動性』, くろしお出版
早津恵美子(200),「現代日本語のヴォイスをめぐって」, 日本語学, 明治書院

용례출전일람표

일본어 원문

『リンコンの人物　および　其の事業』, 山県悌三郎訳, 内外出版協会, 1907
『爾の隣』, 百島操訳,　内外出版協会, 1907
『ヹニスの商人』, 坪内逍遥訳, 中央公論社, 1909
『人形の家』, 島崎抱月訳, 早稲田大学出版部, 1913
『海の婦人』, 島崎抱月訳, 早稲田大学出版部, 1914
『死とその前後』, 有島武郎, 新潮社, 1917
『私の後悔』, 細田源吉訳, 春秋社, 1919
『春の波』, 生田春月訳, 新潮社, 1921
『ハムレット』, 坪内逍遥訳, 中央公論社, 1932 - (저본)坪内逍遥訳, 早稲田大学出版部, 1909

한국어 대역문

『린커언의 인물과 및 그 사업』, 육당訳, 소년, 1910
『너의 이웃』, 육당訳, 소년, 1910
『베니스의 상인』, 이상수訳, 조선도서주식회사, 1924
『노라』, 염백화訳, 영창서관, 1922
『해부인』,이상수訳, 한성도서주식회사, 1923
『죽음과 그 전후』, 김동인訳, 홍자출판사, 1964
『나의 후회』, 김억訳,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봄물결』, 최승일訳, 전문서관, 1926
『하믈레트』, 현철訳, 전문서관, 1923